

# INTRODUCTION TO ELIM

## 엘림 교회 소개

(한인공동체용)

Elim Christian Centre

159 Botany Road, Howick

목차	
저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왜 전통 찬송가를 부르지 않지요?”.....	6
“성찬식을 왜 더 자주 하지 않지요?” .....	6
“설교초에 왜 성경구절을 기록하지요?”.....	6
“왜 이 교회에는 오르간이 없지요?”.....	6
“왜 매 주일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요?”.....	6
저희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8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지구 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왜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9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9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할까요? .....	10
저희는 교회 참석인원을 셉니다. 왜 그렇게 할 까요? .....	11
어떻게 하면 개인교제도 잘되고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12
교회에서 누가 사역(Ministry)을 할까요?.....	12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합니까?.....	12
저희가 전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15
저희 교회에서는 왜 정장을 하지 않을까요?.....	16
저희 교회에는 투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	17
저희 교회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18
저희 교회에서는 은사를 따라 자원하여 섬기도록 합니다.....	18
평신도가 사역자(minister)입니다.....	20
타이틀 보다는 본인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21
엘림 교회 안내.....	23

엘림 교회 당 회장 Luke Brough 목사님이 분기에 한번 “Introduction to Elim” 이란 제목으로 4 시간에 걸쳐 엘림 교회를 소개하는 강의를 합니다. 이 소책자는 그 강의를 녹화한 DVD 전문을 번역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서언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특별히 날씨도 화창한데, 야외로 나가고 싶은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엘림교회 소개” 시간에는 저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고 말한 대로, 저희는 교회의 기초를 잘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가 이전에 속했던 여러분의 교회에서 본 것들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운영하는 배경을 설명 드리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서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 두 구절에 근거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a Great Commitment to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will grow a Great Church!”

“위대한 계명(Great Commandment)과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Great Commitment)은 위대한 교회(Great Church)를 낳는다” 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 장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계명]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28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

엘림 교회의 모든 운영은 이 두 구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과 있을 때는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저희와 함께 있다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인 “하웁, 파쿠랑가, 이스트 마누카우 사람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 저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마다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은 성공적이고 어떤 전략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전략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명문화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성장에 꼭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한 교회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교회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는 라디오 방송국이 몇 개 밖에 없었습니다. 1ZB, 1YA 그리고 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째튼 방송국이 몇 개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방송국은 1ZB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방송국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다양한 방송국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방송국이 하나 밖에 없고, 그 방송국에서 록앤롤 노래를 들려주다가, 그 다음에는 재즈, 컨츄리 뮤직, 웨스턴 뮤직, 현대음악, 랩송, 클래식 순으로 들려준다고 합시다. 과연 어떤 청취자를 가지게 될까요? 아마 청취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방송국에서 각종 음악을 들려주는 방송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전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시내 중심지에 교회를 계획했거나, 사우스 오클랜드에 교회를 개척했다면, 다른 모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윅, 파쿠랑가, 동부 오클랜드 지역의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1) 첫째는 **“희망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성구는 예레미야 29 장 11 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 교회에 들어서면 이 성구가 여기 저기 붙어 있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문 앞의 돌 조각에 새겨 있고, 현관의 간판에도 있고, 교회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2) 다음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지역에는 훌륭한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사회 주민들 모두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로서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그 다음으로 **“예배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와 찬양을 강조합니다.

4) 또한 “가르침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5) 또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관련 성구는 사도행전 5 장 13 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구절은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같은 구절의 후반 절에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장소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호감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저희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저들은 악하다”는 식의 접근은 금물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교량을 만들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를 좋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부속학교, 유치원 등의 운영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저희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거룩한 성전이므로 어느 누구도 외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단체가 와서 저희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새들백교회의 릭워런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중 “목적 40 일”에 참여하셨거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의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초창기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사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설교가 재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교인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부분의 교회가 인간 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관심이 있다 라기 보다는 그들의 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넷째는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지요. 양질의 자녀 양육 장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 중 어떤 것도 신학적인 것이나, 교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릭워런 목사님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은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나는 교회 광고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제가 가끔 베껴둔 교회 광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로 유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광고는 일반인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글쎄요, 무슨 뜻일까요?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아시는 대로 “귀신 나오는 예배인가 봐”라는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들의 광고 밑에 “초교파적, 비카리스마,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쓴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민을 쫓아내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도 대상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전통”, “지루함”, “고리타분한 곳”, “재미 없는 곳” 등과 연관 지어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옛날 앵글리칸이나 카톨릭 교회 분위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한두 번 교회에 가 보았는데 그 당시에 받은 인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디자인에까지 현대감각을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고리타분하지 않는 교회”, “지역주민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건물도 고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고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근 주민이 따돌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Meadowlands 쪽에서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마치 낡은 상자 같은 건물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에게 전도하기 보다는 사람을 쫓아내는 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 디자인 하나에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전통 찬송가를 부르지 않지요?”**

**“성찬식을 왜 더 자주 하지 않지요?”**

혹시 오순절 교회 출신이면, **“왜 예배 중에 방언을 하지 않지요?”**

침례교 배경을 가진 분은 **“주일 예배에 왜 결단의 시간을 더 가지지 않지요?”**

**“설교초에 왜 성경구절을 기록하지요?”**

**“왜 이 교회에는 오르간이 없지요?”**

**“왜 매 주일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요?”**

등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은 1부 예배나 2부 예배에 출입문을 잠그고 애국가를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지요.

**주일 아침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희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기존 그리스도인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 물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희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희의 주된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의 주된 대상은 믿지 않는 이 지역 주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지요.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므로 주된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주된 전도 대상은 잃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전통 찬송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만찬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희가 교회에 와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면, 저들이 미쳤다고 말하리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미친 사람들과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형식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갑니다. 저희는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흔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눠 드리는 설교초에 성경구절을 인쇄해 드립니다. 성경은 번역본이 서로 다르지요. 따라서 성구를 어떤 특정 번역본으로 기록해 놓으면 모두가 같은 번역본을 보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도 성경구절을 가능한 많이 인쇄해 놓음으로 이들의 영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에는 그 배후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보고 저희 교회의 예배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이 교회가 맞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을 저희는 만류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 스타일이 가장 좋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경배일까요, 섬기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서 보듯이 경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예배가 앞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지켜야 할 공통분모입니다.

그러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음악과 예배 스타일이 경건한 의식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매우 조용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예배가 진짜 시끄럽습니다. 천장이 내려올 것 같지요. 또 어떤 곳에 가면 예배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에 치우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저희 엘림 교회에는 말하자면 중간 쯤 됩니다. 매우 형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유분방하지도 않습니다. 주보에 순서를 기록해 그에 따르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전혀 순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는 있지만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여 가능하면 1시간 10분 내외로 끝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장 때문에 다음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 스타일이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스타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형식이 어떻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찾으실 때 “난 이 교회가 마음에 듭니다. 섬기는 교회로 삼고 싶습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예배를 좋아하시면 교인들에게 1부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권하곤 합니다. 2부 예배만 해도 1부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더욱 조용한 예배를 원하시면 3부 예배 참석을 권합니다. 좀 시끄러운 예배를 원하면 4부(저녁) 예배를 권합니다. 아니면 더 조용한 다른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고조되는 교회를 원하시면 그런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이면 예배 스타일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형식에 관한 한 중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요.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올바르고 다른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예배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 저희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저는 3 단어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축제(Celebration)**”입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는 축제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오기 싫은 데 억지로 오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끌려오는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집에서 더 자고 싶은데 깨워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는 애들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은 본인이 오고 싶어 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교회는 재미가 있는 곳이어야 하고, 축제 분위기여야 합니다. Fun time 즉 재미가 있고, 영적으로 힘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감동(Inspiration)**”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 예배는 영의 양식을 먹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파에 시달려 왔고, 험한 1 주일이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하고, 없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애들을 길러야 했고, 이웃과 언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말다툼도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마저 설교로 다시 한번 두들겨 맞는다면 최악의 예배입니다. “당신들은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야단치는 설교만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못 살고 있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설교는 커녕, 야단치는 설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준비(Preparation)**”입니다. 축제, 감동, 다음에는 준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주일 설교를 담당하든 월요일부터 생활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교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어디있을까요? 강단에서 허튼 얘기나 하고 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과, 가족과, 직장과, 생활에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허튼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월요일부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일 설교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실 생활과 관련된 가르침, 보다 실제적인 가르침을 듣고 무엇인가 생활현장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내용”의 설교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나”를 주로 설교합니다. 흔히 교회에 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설교를 통해 듣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지 못하고, 기도도 충분히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잘해야

하는 “당위성”은 교회에 와서 다시 듣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잘 못한다고 “야단치는 설교”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의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교합니다.

다음은 전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도란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지구 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왜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괴로운 인생과 모든 문제를 다 떠날 수 있을 텐데요. 글썄요,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온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놓아두셨을까요? 죄를 지으라고요, 아니면 증인이 되라고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놓아 두신 목적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둘째는 말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몸 된 교회로 섬기시려면 분명히 동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면 교회를 잘 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보다 마음에 드는 작은 교회를 찾아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족한 교회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 여년 동안 저희 교회는 매년 성장해 왔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이 있으면 계속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욕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직원 봉급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이미 성장했습니다. 사실 교회 규모가 더 적었을 때 운영이 훨씬 쉬웠습니다. 저는 집에서 근무를 했고 교회 사무실이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길 건너 편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날씨가 좋으면 전화를 해서 낚시하러 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 1명의 교회였으니까요. 사무실을 떠나 살짝 낚시하러 가도 누구도 알 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제가 오전에 낚시하러 가면, 나머지 직원들도 그렇게 하기 원할 것입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지옥에 가든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니 다른 사람이 지옥가는 것은 안됐지만 내일은 아니다”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큰 교회를 가져보겠다는 예고이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가 되면 일도 많고 골치도 더 아프고 문제도 더 많습니다. 또한 돈 걱정도 그 만큼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계속 성장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할까요?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는 3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적은 수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양 무리의 수를 헤아린 목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99 마리의 양이 있으나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99 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우선 순위입니다. 즉 교회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이 약 2,000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잃어진 영혼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책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 성도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잃어진 한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잃어진 영혼이 있는 한, 저희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예배의 수를 늘리고, 프로그램도 늘리고, 건물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성장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눅 14:23]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채우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Full house 를 원하지, 빈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 1:8]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바로 자기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골 2:19]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수 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는데 대한 많은 변명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구약에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국민 전체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구약 중의 한 권은 “민수기” 즉 백성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수를 세셨습니다. 양의 수를 세지 않고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분은 숫자를 세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교회 참석인원을 셉니다. 오던 분이 안 오시는 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가 위층에서 열심히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를 셀뿐 아니라 누가 이번 주에는 오지 않았나 파악합니다. 누가 왔고 누가 오지 않았는지 최대한 파악을 합니다.

### 저희는 교회 참석인원을 셉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 수를 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타 중인지, 어떤 사람이 아팠는지,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무슨 이유로 안 보이는 지 알기를 원합니다.

변명 1: 어떤 사람은 “출석수를 체크하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일 헌금액을 셉니까?” 물론 헌금 액을 셀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니까 헌금입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지요. 물론 저희도 헌금액을 셉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셉니다.

변명 2: 또 하나의 변명은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지면 안될까요? 양과 질이 서로 원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장자나 장녀가 아닌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7 번째였습니다.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지요. 옷도 내려가면서 얻어 입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를 낳고 나서 “양보다는 질이니 그만 낳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7 번째이니 태어날 상상도 못했겠지요. 저는 우선순위 최 하위였으니까요.

자녀를 잃었다고 가정합니다. 저는 자녀가 4 인데, 지금은 모두 성인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 캠핑을 함께 갔다가 잃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그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한 두 시간 후에 하나를 찾았는데, 아내에게 “이제 돌아 갑시다. 양보다는 질인데 하나 있으면 됐지”라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낚시를 가면 무엇을 원합니까? 질을 원합니까? 아니면 양을 원합니까? 저는 둘 다 원합니다. 저는 큰 것으로, 그것도 많이 잡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운영에 질과 양을 모두 원합니다. 그리고 질이 좋아야 양도 많아진다고 믿습니다. 질과 양은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변명 3: 또 하나의 변명은 “큰 교회에는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제가 부족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며, 때로는 더 적은 교회라도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전의 일인데요. 한번은 어떤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일 밤 초청 강사였기 때문에 집회 시간 보다 30분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약 50 여명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예배가 중간쯤 진행될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건네지 않다가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일어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말을 건넌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작은 교회도 차가울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개인교제도 잘되고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반겨주는 친근한 교회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장하는 큰 교회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계속 성장하면서 동시에 계속 작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축하분위기의 대 집회를 갖지만 성경공부, 교제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삼으시면 단순히 주일 대 예배를 즐길 뿐만 아니라 소 그룹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거기에서 친교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오시면 “이 교회는 따뜻하지 않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잘못입니다. 소그룹에 스스로 참여하여 우정을 쌓고 친교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 교회는 현재 70 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60 만 성도였을 때 5 만 구역이 있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는 규모가 커져가면서 동시에 더욱 작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제가 전도 보다 우선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제가 전도 보다 우선이 되는 교회는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 교회에서 누가 사역(Ministry)을 할까요?

물론 사람들이 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의 유일한 사역자(Minister)가 아닙니다. 저는 타이틀(칭호)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들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타이틀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몸의 연합 사역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 몸 된 교회의 지체이며 동일하게 중요하고, 동일하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란 봉사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성도들에게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 장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봉사의 일이란 사역(Ministry)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합니까?

저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코치가 직접 축구를 합니까? 아니지요. 코치는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만일 제가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면, 이 교회는 오래 전에 성장을 멈췄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200 명이 한계라고들 말합니다. 200 명쯤 되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주춤한다는 것이지요. 뉴질랜드 교회들과 서방 많은 교회들을 보면 150 에서 200 명까지만 성장하고

중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한 사람의 최대 역량까지만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중단하게 되며, 그 최대 역량은 150-200명 정도입니다.

저는 마음 속에 1000명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힘만으로는 1000명의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약에서 가르치는 몸 된 교회의 연합사역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과 유대교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몸으로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각자가 사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몸 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제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일이 심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죽음 직전에 있을 경우 일 것입니다. 어쩌다 있는 일이지요. 일반적으로는 저의 심방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방, 스몰그룹 등 각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목자는 양을 낳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을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저의 일은 이 교회의 목자로서 양들이 자랄 수 있도록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 외에 많은 다른 사람이 이 교회의 다른 분야에서 다른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를 초빙할 때, 교인들은 “40세 된 사람, 40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이 든 분들과 잘 교제가 되는 분, 어린이들과도 잘 통하는 분, 그리고 청소년들을 잘 인도하는 분” 등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성경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 캐어도 잘하는 목사”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 자격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능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읽어 보면, 몸의 사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로 각자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퍼즐을 즐깁니다. 1000개짜리가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지루합니다. 너무 적으면 너무 쉽게 끝납니다. 따라서 자주 이러한 퍼즐을 하지요. 앉아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춥니다. 그렇게 열심히 맞추는데 때로는 작은 조각이 피부 뒤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갔다가 어디선가 떨어져 분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거의 다 맞춰 999개까지 다 맞췄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글쎄, 다 맞췄다”, 하면서 아내에게 “여보, 와서 퍼즐을 좀 봐줘요.” 아내의 첫 마디는 “하나가 빠졌네요.”하는 것입니다. “999개는 맞췄는데도 아내의 첫 반응은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란 퍼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몸에 필요한 지체입니다! 각자가 빠짐 없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빠지면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없으면 누가 알아차립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는 것을 알아내는 사람들은 소그룹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출석체크하는 분도 알아차리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교회의 중요한 지체로 생각합니다. 저희 엘림교회에서도 사역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Every member is a Minister’ 즉 각 개인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중요합니다. 사역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만찬을 준비하든, 교회 입구에서 반갑게 성도를 영접하든, 어린이를 가르치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 5-6]”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Every member is gifted in some area’.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 특별한 기질, 인생체험 등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과 동일한 체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만 은사를 발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교회를 세우는데도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제 범위는 엘림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진실된 교회”로 보지 않지요. 하나님은 지구 상에 거대한 한 가족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이러한 지구적인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영,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침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는 주님의 신성, 주 예수그리스도의 재림 등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이 아닌 교리, 즉 천국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히 따지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보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의견이 있고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또 말세론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들대로 의견이 있고 저는 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소한 교리”를 고집하는 분은 저희 교회에 와서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머지 않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소한 교리를 항상 강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의 편견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필수 항목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롬 14:1]

여러분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는 기본 교리가 아니라면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두라.” 이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가 하나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사소한 교리를 강단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저희의 전도대상과 주일 아침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전도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예배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

[고전 9:22]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 저희가 전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희의 전도 대상은 “Mister and Mrs Manukau”입니다. 다시 말해 하윅, 파쿠랑아, 마누카우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 부모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A) 한 예로 저희 전도대상은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교육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교회로서 저희는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때문에 이들과의 연결을 위해 부속 초등,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Bible college 도 운영합니다. 교육은 저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교육을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B) 이 지역 주민들은 자기의 직업을 좋아하는 편이고 보통 부부가 모두 일을 합니다. 자영업자도 많고, 일부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든 자기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좋은 해변과 훌륭한 시설이 많습니다.

C) 건강과 운동도 그들과 가족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스포츠 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D) 그리고 소그룹 보다는 군중 속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주일 아침에 새로 오신 분이 많은 편입니다. 큰 교회에 와서 조용히 있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요. 조그만 교회에 가면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가만히 왔다 가만히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로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일어나 박수를 하거나 어디서 온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돌이 있는데,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낯 선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새로운 분이 오면 “여기에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어디 일어서 보시지요. 존함을 말씀하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데 저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가 군중 속에 숨어 예배 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곳 주민들은 격식화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 중 하나는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던 짓을 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복잡한 예배 의식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F) 그리고 이들은 현대감이 있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 지역 여론 조사를 한다면 오르간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록음악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중적인 중간 형태의 현대 찬송을 합니다.

G) 이들은 또한 5년 전보다 인생을 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딱딱한 것 보다는 케주얼하며 비공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모셔올 수 있도록 예배를 구성하지요. 여러분의 친구 중 많은 분의 경우, 교회의 개념은 옛날 앵글리칸이나 카톨릭과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흔히 자기는 교회를 좋아하지만 친구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분위기가 한결같도록 노력합니다. 친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에 편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매주 한결같은 예배 분위기를 유지하려 합니다.

주일 아침의 가르침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룹니다. 매우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깊은 내용을 배우려면 저희에게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등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은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 와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다룹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매주 생활 전선에서 부딪치는 것들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가족문제, 직장문제들을 다루고 주중에 필요하면 깊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저희 교회에서는 왜 정장을 하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 몇 명을 빼고는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눈 여겨 보셨으면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는 학교 강당에서 모였는데, 어떤 소그룹과 같은 인상을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 정식 교회처럼 보이고자 했지요. 교회가 커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교회로 여기는 한,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인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는 교회가 좀더 격식을 갖춘 곳이지요. 그들의 취향을 맞춰드리기 위해 넥타이를 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도 갖추고 넥타이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온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과 친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글쎄요. 저희 교회 사람들은 많은 분이 주중에 정장을 하고 직장에 갑니다. 주말에는 긴장을 풀고 케주얼하게 하고 싶고, 교회에 올때도 그렇게하기를 원합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거든요.

제가 복장에 대해 언급을 한적이 딱 한번 있었는데,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만찬 위원 중 한 사람이 반 바지 차림에 샌달을 신고 호주 맥주 포스터 선전 티셔츠 바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만찬 컵을 돌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에게 가서 “그 호주 맥주 티셔츠 있잖아. 성만찬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뉴질랜드 산 Lion 이나 DB 였더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시간과 돈의 면에서 빠듯합니다. 많은 금액의 모기지(주택용자)가 있든지, 부담해야할 렌트비가 있든지 합니다. 시간과 돈 문제에 쫓기며 삽니다. 우리는 여러 모로 이런 분을 닮았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가서 “일요일 아침에 우리교회에 올래요? 구약개요를 공부하고 있거든요”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누군지 강해합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한 구절씩 강해를 합니다” 또는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성도들에 관해 공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흥미를 가질까요?

아니면, “여보게, 우리 교회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5 가지 열쇠’ 또는 ‘보람된 생애 3 단계’, 또는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한 4 가지 방법’을 설교하는 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하겠습니까? 어떤 제목에 끌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일 아침에 주로 “어떻게 하면”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무엇인가 직접 관계가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 저희 교회에는 투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부터는 저희 교회의 구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 비즈니스 관행, 심지어 종파의 전통이 교회 구조를 좌우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구조는 몸을 붙드는 뼈와 같아서 외부로 보여서도 안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있어 교회를 붙들고 있지만 이런 클래스에 와서 들어보아야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구조를 가집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지요. 어떤 조직은 갈등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구조는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구의 정부 모델을 복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교회의 구조를 결정짓습니다.

(1) 교회의 첫째 성격은 **교제(Fellowship)**입니다.

[행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의 우선 순위 1 위는 **하모니(harmony)**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책자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교제란 연합을 증진하고 분파를 없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간을 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고요? 교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연합과 하나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첫째가는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가 잘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구조가 하나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고전 11:17]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런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연차 총회가 그렇지요.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인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흔히 부정적인 사람일 수록 일어서서 한 마디를 하고 교회의 교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투표가 없습니다. 투표란 교제를 나누게 하고 사람들의 파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관여된 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사 건건에 대해 투표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믿는다면, 이 교회를 잘 못 택하셨습니다. 투표를 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방식의 교회 처리를 원하시면 그런 교회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처리는 저희 교회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 교회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벧전 3:8]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도 바울은 “형제”라는 말을 98 번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규정에 근거한 관계 형성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각종 규정이 없습니다. 관계에 근거하여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에 의해 운영되는 가정 보셨습니까?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잘못을 하기 전에는 규정을 만들지 않지요. 예를 들어 새벽에 귀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가 시간을 규정으로 정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자정 이전에는 귀가해야 합니다”등등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글썄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가 넷 있는데,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 투표하면 엄마 아빠가 항상 지지요! 가족이 건건이 투표를 한다고 해 봅시다. 하루 밤은 맥도날도, 그 다음 저녁은 피자, 학교는 빠지고, 하루 종일 TV 로 결정 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리는 신정(神政)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감독(장로, 목사, 목사)을 임명하여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교회를 운영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회중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가족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부모는 가족을 위해 생명을 내 놓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 교회를 위해, 봉사를 위해 삶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가정은 사랑이 없는 가정입니다. 역기능 가정 자녀들이 잘못되기 일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잘못되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장로들은 리더쉽을 발휘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이 15년 동안 주님을 섬긴 사람과 동일한 성숙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하면 모두가 한 표씩입니다. 저희는 그럴게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가족입니다.

## 저희 교회에서는 은사를 따라 자원하여 섬기도록 합니다.

저희는 몸이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 조직에도 이것이 반영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투표하는 것 보았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는 피선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닌 영적 은사대로 기능을 합니다.

[롬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저는 로마서 12 장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지체와 은사에 대한 말씀이지요.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롬 12: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롬 12:8]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규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저에게 교회란 이런 그림 같습니다. 어떤 가족이 있는데 식탁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한 아이가 바닥에 디저트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각각 은사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요.

그릇을 넘어뜨리기 전에도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 중 누군가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릇을 땅에 떨어뜨리게 돼”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레를 가져다가 아무 말 없이 청소합니다. 그들에게는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보라, 식탁의 매너는 그릇은 여기에, 팔굽은 여기에, 스푼은 여기에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바를 가르치지요.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누군가 이야기 합니다. “괜찮다. 다음에는 안그럴거야. 걱정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누군가가 말합니다. “여기 디저트가 있는데, 내 거 먹어”하면서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누군가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집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고, 당신은 이것을 하시오”.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합니다.

“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누군가는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아무렇지 않아. 그렇지. 이젠 됐어, 울지마. 알았지”라고 말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각종 다른 은사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능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를 선거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선거하거나 임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자원하여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합니다.

손을 선거해서 손 노릇하게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손입니다. 물건을 집어 들고 손이 하는 일을 합니다. 코를 선거해서 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 있나요? 코는 코의 기능을 발휘할 뿐입니다. 교회 내의 여러분의 직분도 선출이 되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도록 주신 은사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타고난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을 하도록 불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 질 것입니다. 크림은 위로 뜨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 소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미니스트리(Ministry)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타이틀(title)을 원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의장이 되려면 저희 교회에서는 실망할 것입니다. 저희는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투표하여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여러분 뒤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다만 걸을 뿐이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리더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쉽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투표나 선거가 없습니다.

### 평신도가 사역자(minister)입니다.

조직에서는 정비(maintenance)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기체에서는 사역(ministry)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가능하면 각종 위원회 등 회의를 피합니다.

교회가 적을수록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저희 교회처럼 큰 경우에는 최소한의 의사 결정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일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로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 스스로 사역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엘름교회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사역을 최대화 하고, 정비는 최소화 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교회 구조에는 “평신도가 미니스터(minister) 즉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행정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교회는 오래 전에 성장을 멈췄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서로 다른 미니스트리(ministry)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이 시작해서 그들이 성장시켜 발전시켜 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Luke의 교회는 이런 일을 한데!” 하고 놀라며 말합니다. 저는 “그래?”하고 반문하지요. 제가 시작한 사역이 아닌걸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자원해서 시작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조직이 강한 것은 정비가 잘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은사에 따라 섬기면 사역이 저절로 됩니다. 은사대로 섬기면 싫지 않고 오래 갑니다.

저는 한번 초등학교 성경교육 사역(Bible in school)에 딱 한번 자원해 보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저의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애들이 싫고요. 서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 주일 중에 최악의 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방학이 오기 전에 그만 두었지요. 저의 옆교실에서는 친구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일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그는 3 강좌를 맡아 했습니다. 애들도 그를 좋아했고, 모두가 제 클래스에서 그 사람 클래스로 가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은사가 아닌 것을 섬기려고 하면 정말 싫은 일이 됩니다. 은사대로 하면 그 일이 쉽습니다. 타고난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48 번이나 “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는 결코 1 명으로 구성된 밴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양떼입니다. 예수님께서 흔히 사용하신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목자가 있고 목자의 인도함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양떼를 위원회가 인도하는 것 보셨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목사님께서서는 설교만 하시고 결정은 저희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더쉽은 몇 명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에도 잘 보세요.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이것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야의 은사를 주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못 견디고 그 분야의 약점이 자꾸 보이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일본사람에게 사역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서 원하시는 대로 시작을 해보시지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일본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하면, 집사들에게 말합니다. 집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제안했던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안했던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질 않을걸요.”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집사들도 “그건 저희들의 생각과 다른데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면, 또는 특정 사역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저희에게 와서 말하세요. “제가 이 분야에 소명을 받은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적극 밀어드릴게요. 당신이 택한 사역에는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운영할까 묻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결정해서 하세요.”

나의 사역에는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제가 결정권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운영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렇게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저는 그 사역을 격려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작하려면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에 리더가 되세요.

#### **타이틀 보다는 본인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body 사역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장로를 뜻하는 단어가 몇이 있습니다. 히랍어 ‘Poiamin’ 이라는 것은 목사-목자라는 뜻입니다. ‘Presbyteros’ 는 장로라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입니다. ‘Episcopos’ 는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Presbyteros’ 를 이용하여 장로교에서는 지도자를 Episcopos 라 부릅니다. 앵글리칸에서는 지도자를 감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뜻의 말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감독이고, 누구는 목사이고, 누구는 장로이고 등 타이틀을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두 같은 역할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들은 서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 장 5:1-2, 사도행전 20:17-18 등에 보면 이 단어들이 서로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저희는 목사를 어떻게 부르지요. 장로를 어떻게 부르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타이틀 보다는 본인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타이틀을 꼬리표로 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제어(control)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목사는 모든 것에 간섭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도들은 리더를 제어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제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두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어냐 성장이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그리스(grease)를 만드는데, 사업이 잘 되어 전국에 그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많이 팔다 보니 생산을 늘려야 했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계를 더 들여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더 들여놓자 자체에서 그리스를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부서를 폐쇄하기로 했다 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체 기계에 그리스를 주는 일에 바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영혼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정일로 바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뺏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어(control)를 포기하고 성장에 대한 열린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건물이 우리를 섬기지 못하면 그것은 헐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벽이든 무엇이든 다 헐어야 합니다. 저희는 거룩한 성전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를 믿습니다. 도구는 전도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기독교인 그룹이 와서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처음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다른 교회 건물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모였습니다. 결혼식이나 기타 행사를 하기 위해 다른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의 단체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저희 건물은 지역사회를 전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성장에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역(Ministry)을 최대화 하고 행정을 최소화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림 가족에 소속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과의 차이는 헌신입니다. 소비자나 생산자나 하는 차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교회에 헌신하도록 진정으로 권합니다. **Introduction to Elim** 을 마친 분에게는 헌신 카드를 드립니다. 소속 교회에 대한 작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 교회의 책임을 나눠지겠습니다.
3.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4. 교회의 간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들은 소속교회를 지원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성경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생각해보시고 “난 이 교회를 소속교회로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솔직하세요. 그래도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이 좀 두껍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

## 엘림 교회 안내

뉴질랜드에는 전국적으로 약 50 여 엘림 교회가 있습니다. Elim Christian Centre 로 불리는 저희 교회는 이곳 외에도 오클랜드 시내와 오클랜드 남부에 각각 하나의 campus(지성전)가 있습니다.

### **East Centre**

159 Botany Road

Botany Downs

Manukau 2010

T: +64 9 538 0360

F: +64 9 535 5367

E: [east@elim.org.nz](mailto:east@elim.org.nz)

주일 예배 시간:

8:30AM, 10:00AM(한국어 통역), 11:30AM(중국어 통역), 5:00PM(타밀어 예배), 6 시 PM

### **City Centre**

74 Cook Street

Auckland City 1010

T: +64 9 309 3798

F: +64 9 309 3721

E: [city@elim.org.nz](mailto:city@elim.org.nz)

주일 예배 시간: 오전 10:00(한국어 통역), 오후 2 시(중국어 통역), 저녁 6 시

### **South Centre**

42-46 Weymouth Rd

Manurewa 2102

T: +64 9 268 0745

F: +64 9 535 5367

E: [south@elim.org.nz](mailto:south@elim.org.nz)

주일 예배 시간: 9:00AM, 10:45AM

### **North Centre**

33 Porowini Ave

Whangarei 0110

T: +64 9 430 4280

F: +64 9 438 3401

E: [north@elim.org.nz](mailto:north@elim.org.nz)

주일 예배 시간: 10:00AM, 6:00PM